



가

박지은 | 이화여대 강사

## 1. 들어가는 말

‘의느님.’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서 ‘성형의사’를 지칭하는데 사용하는 용어이다.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의 몸을 새롭게 바꾸어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는 제2의 창조자가 바로 ‘의느님’이다. 자신의 신체, 즉 몸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한 몸에 대한 관심은 정신과 몸이라는 서구의 이분법적인 틀 속에서 이제까지 열등한 위치를 차지했던 몸에 대한 새로운 담론의 출현을 가져왔고, 몸과 동일시되어 억압받던 여자의 몸에 대한 여성학적 관심도 급증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몸의 재조명을 통하여 정신과 몸의 조화로운 관계는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몸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몸은 인간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즉 몸이 우리사회에서

[www.kci.go.kr](http://www.kci.go.kr)

‘자본의 한 형태’가 됨으로 몸은 상품화되고 사회가 요구하는 아름다운 몸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폭력이나 억압과 차별을 경험하곤 한다. 아름답지 못한 몸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정상이라는 암묵적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생각되는 몸, 예를 들어 신체 일부가 절단된 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몸, 해외 입양아들의 이질적인 몸이나 외국인 등 다양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 편견의 시선을 받으며 더 심각한 차별을 경험한다.<sup>1)</sup>

특히 여성의 몸은 더 높은 상품성을 요구받는다. 갓 태어난 여자 아기의 외모가 아름다움의 기준에 못 미칠 때 아기는 때로 성형 이야기를 들으며 태어나면서부터 몸의 상품화를 경험한다. 사회에서의 외모 차별은 젊은 여성들이 아름다운 몸의 기준에 자신의 몸을 맞추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수술을 받기도 혹은 피나는 노력을 하기도 하면서 점차 나의 몸으로부터 멀어짐을 경험하기도 한다. 얼마 전 매체를 통해 방영된 양악수술에 대한 다큐가 이런 내용이었는데 대부분 출연자들은 젊은 여성들이었다.<sup>2)</sup> 양악수술을 고민하는 출연자들의 얼굴은 성형이 꼭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직장에서의 차별이나 어려서부터 받은 놀림으로 인한 상처 혹은 개인적으로 아름답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출연자들은 수술을 결심한다. 수술 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 여성은 자신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한다. 자신의 몸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는 타자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마른 몸이 아름답다는 생각은 또한 여성의 몸의 기능 중 하나인 출산 이후 몸의 변화를 여성들로 하여금 부정적으로 보게 한다. 출산 후 자신의 몸을 보는 엄마들은 생명창조의 몸으로서가 아닌,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한 몸으로 때로 우울함을 경험한

---

1) 이에 대한 글들은 다음을 참조하라. 케티 콘보이/ 나디아 메디나/사라 스텐베리 엮음,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의 상품화 그리고 저항의 가능성」(고경하 외 편역), (서울: 한울, 2001), 몸문화연구소 편, 「그로테스크의 몸」(서울: 큐북, 2010).

2) SBS 스페셜, "그녀, 뼈를 깎다, 내 딸의 양악수술," (2013년 5월 26일).

다. 중년 혹은 노년 여성도 마찬가지다. 젊음이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인식되면서 신체의 노화는 더 이상 원숙한 혹은 자연스러운 인간 삶의 한 과정이 아니다. 단지 인간을 추하게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노화와 추함의 이미지는 도덕적 악보다 더욱 혐오스런 관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인 듯 하다.<sup>3)</sup> 이렇게 몸이 자본화된 사회에서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시선으로 우리와 타인의 몸을 보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몸을 있는 그대로, 창조된 그대로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창조를 고민하며, 때로는 우리와 다르고 낯선 몸에게 혐오의 시선을 보내며 재창조를 부추기기도 한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혹은 추한 몸, 정상 혹은 비정상적인 몸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누구의 시선으로 우리는 우리와 타인의 몸을 평가하고 있을까? 시, 공을 초월한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아름다움이란 존재하는 것일까? 성형왕국이라 할 정도로 몸에 대한 집착과 차별이 가중되는 현 시점에서 이 글은 자신의 몸으로부터 타자화되는 우리 몸에 대한 긍정과 자부심 그리고 우리와 타자의 몸을 보는 긍정의 시선을 아가의 여자의 몸 이해를 통해 되찾고자 한다.<sup>4)</sup> 이를 위해 첫째로 구약에서 여자의 몸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간략히 살펴본다. 이것은 한 특정 집단 혹은 개인의 시각이 때로는 여자의 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전체지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전제적 이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동, 식물 혹은 건축물 이미지로 표현된 아가의 여자의 몸을 기괴한(grotesque) 몸으로 이해한 피오나 블랙(Fiona Black)의 주장과 반대로 아가의 여자의 몸을 강하고 아름다우며 자신감 있는 몸으로 읽고자 한

3) 김종갑, “일상으로서 그로테스크,” 몸문화연구소 편, 「그로테스크의 몸」(서울: 쿠북, 2010), 6.  
 4) 현 우리 사회의 지나친 외모 지상주의적 사고를 비판하며 구약성서 혹은 아가를 통해 인간의 몸을 해석하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지찬, “아가서의 문예적 독특성과 신학적 메시지,” 『신학지남』 74(3), (20007년 9월) 121-162, 이은애, “구약성서에 나타난 인간의 아름다움,” 『한국기독교신학논총』74집 (2011), 5-26, 이종록, “관음을 넘어서 응시로: 아가서 4장 1-5절을 중심으로 살펴본 몸 이야기,” 『성경연구(설교자를 위한)』69호 (2000년 8월), 36-71.

다. 마지막으로 우리 혹은 타인의 몸을 바라보는 편견의 시선을 성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가에서 보고/보여지는 여자의 몸을 향한 시선은 관음이 아닌 사랑스러운 응시임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 2. 부정한 몸으로서의 여자의 몸: 누구의 시선인가?

부정한 몸으로서의 여자의 몸에 대한 담론과 여자의 몸을 바라보는 편견의 시선이 형성되는 한 단면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비정상 혹은 기괴하다는 관념은 내재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사회나 특정 시각을 근거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여자와 남자 몸의 생물학적 차이가 차별로 진행되고 여자의 몸이 열등하게 범주화된 서구 담론 형성의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이다. 그의 책 『동물의 발생(The Generation of Animal)』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자의 신체구조를 인간의 표준으로 설정하여 인류의 중심은 남성이며 여자는 “변칙”이자 “변종”으로 규정한다.<sup>5)</sup> 즉 남자의 생식구조를 따라 정상적인 생식과정이 진행되면 남자가 태어나고, 여자는 비정상적인 생식과정이 진행되거나 무언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만 생겨난다는 것이다. 수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남자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한다. 생명의 원리는 독점적으로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전해지며, 여자의 난자는 수동적으로 “생명을 담는 그릇”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자는 비정상적이며 남자와 달리 “합리적 정신”이 결여된 존재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해한다. 이렇게 남성 중심적, 남성 편향적인 인간이해를 근거로 여자의 몸과 정신은 열등하고 비정상적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는 이후 서구 담론에서 과학적인 것으로 고

---

5) 로지 브레이도티, “어머니, 괴물, 기계” (손영희 옮김), 케티 콘보이/ 나디아 메디나/사라 스텐 베리 엮음,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의 상품화 그리고 저항의 가능성』(고경하 외 편역), (서울: 한울, 2001), 84.

정되었고, “감소된 가치를 지닌” 여자의 몸 이해는 여성 혐오와 비하의 근거가 되어왔다.<sup>6)</sup>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여자의 몸 이해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남성 중심적 사고 방식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후 여자의 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하나의 규범이자 시선으로 고정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하여 그리스의 이원론적 사상이 여성의 부정적인 몸 이미지 형성에 기여했다면, 히브리 사상 즉 구약성서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정신과 몸이 통합된 유기적이고 “통전적”인 존재로 이해된다.<sup>7)</sup> 특히 영혼을 지칭하는 “네페쉬”는 인간의 정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육체를 포함하는 용어로 영혼과 육체의 긴밀한 관계를 지칭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몸과 인간 몸의 욕구는 긍정적으로 이해되었다.<sup>8)</sup>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인간의 몸 이해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몸은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해석되어 왔다. 왜냐하면 그리스 사상과 마찬가지로, 여자의 몸의 생리학적 특성들이나 기능들을 남성 중심적 시각으로 읽어내고 남성 편파적 관점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약성서의 사제문서(priestly writings)에는 인간으로서의 여자의 몸이 부정적으로 묘사되며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어 등장한다. 바빌론 포로기 동안 혹은 포로기 직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제문서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자손의 번성 즉 출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의 번성 뿐 아니라 부계혈통을 따라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전수된 사제직의 합법적 유지를 위해서도 출산은 중요한 관심사였고, 이것은 사제문서의 세세한 계보(genealogy)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사제들의 계보는

6) 윗글, 84-85.

7) 이경숙, “서론: 여성이 읽는 구약성서,” 이경숙 외, 「여성이 읽는 성서: 구약성서개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21.

8) 윗글, 22, 28.

일반적으로 부계중심의 남성 자손들의 이름만 열거될 뿐, 그들의 아내들이나 딸들의 이름은 누락되어 있다. 또한 자손 번성, 즉 계보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계약의 상징도 출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능을 하는 여자의 몸을 배제한다. 오히려 남근을 중심으로 한 할례로 상징된다. 이렇게 남자의 생식기를 중심으로 “출산과 남성성(masculinity)”이 연결되면서 남성들은 할례라는 자신들의 몸에 행해진 “유사한 표시”를 통해 서로의 결속력을 다지는 하나의 남성 공동체를 형성한다.<sup>9)</sup>

특히 우주적 조화와 질서유지, 사제들과 개인의 성결 및 이스라엘 공동체의 제의에 대한 사제들의 지침서로 볼 수 있는 레위기에 묘사된 여자의 몸의 기능들은 남자의 몸과 차별화되어 묘사된다. 정결이 인간의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들과 연관되면서, 제의나 일상생활에 부정을 가져오는 것들이 명시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인간의 몸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많은 고대 문화들은 일부 몸의 상태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비가시적이고 무형적이거나, 인간이 신에게로 다가가는 직접적 통로를 방해하는 명백한 부정(impurity)의 상태를 초래한다고 믿었다. . . 예를 들어 먹는 행위 혹은 성행위와 같은 중요한 몸의 기능도 제의의 오염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악성 피부병이나 월경, 생식기로부터의 유출과 같은 신체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부정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sup>10)</sup>

“생명에서 죽음으로의 전이(레 21:1-4), 새 생명의 탄생(레 12:1-5), 생식기로부터 유출되는 액체(레 15:2-12; 25-27)” 등은 여자와 남자 모든 인간의 몸의 경험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

---

9) Howard Eilberg-Schwartz, “The Problem of the Body for the People of the Book,” Alice Bach(ed.), *Women in the Hebrew Bible* (New York: Routledge, 1999), 58-59.

10) Judith Romney Wegner, “Leviticus,” Carol A. Newsom and Sharon H. Ringe(ed.), *Women’s Bible Commentary* (Expanded Editi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42-43.

모두 우주의 조화를 위협하고 오염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몸의 상태나 그 과정 중에 놓이게 된다.<sup>11)</sup>

그러나 부정한 여자의 몸과 남자의 몸 혹은 부정했던 몸들이 정결의식을 거치면서 다르게 취급된다. 부정했던 남자가 정결의식으로 깨끗해지면 “야웨 앞에”(레 15:14) 나아갈 수 있지만, 여자는 결코 야웨 앞에 직접 나갈 수 없다(참조, 레 15:29).<sup>12)</sup> 출산한 여성은 부정하고, 여아를 출산한 경우는 남보다 2배의 기간을 부정한 기간으로 보내게 된다(레 12:1-8). 또한 사람을 드리겠다고 서약하고 서약한 사람이 대신 돈을 낼 때 “여자는 남자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를” 지불하는데, 이것은 “여자는 남자에 비해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의 가치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sup>13)</sup> 레위기 이외에도 여자는 자신의 몸의 특성으로 많은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어 월경 중 여자는 희생 제단에 가까이 갈 수 없으며(출 35:22-29), “여자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출 23:17, 신 16:16).”<sup>14)</sup> 특히 출산이나 월경은 고대인들에게는 신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었는데, 생명과 풍요와 관계된 “여성의 힘”이 이러한 몸의 기능을 통해 표출된다고 믿게 되면서 여자의 몸과 관련해 금기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창조자로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여성들은 점차적으로 부정한 몸을 가진 존재로 잘못 해석되고 평가된 것이다.<sup>15)</sup> 이렇게 볼 때 결국 구약성서에 나타난 부정한 여자의 몸은 당시 그들의 세계에 확산되었던 신념을 통해 해석된 몸이며, 남성 중심적 시각으로부터 바라본 여자의 몸을 왜곡한 시선이라고 할 수 있다.

---

11) 율글, 43.

12) 율글, 42.

13) 이경숙, “생태학적 여성신학의 관점에서 본 구약성서의 자연과 여성,” 『구약성서의 하나님·역사·여성』(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307.

14) 율글.

15) 율글, 306-309.



### 3. 아가의 여자의 몸: 기괴한 몸인가? 아름다운 몸인가?

구약성서의 많은 부분이 부정적이고 남성 편향적 시각으로 여자의 몸을 응시하고 해석한 것과 대조적으로, 아가에 등장하는 여자의 몸은 대부분 긍정적인 관점으로 응시되고 해석되어 왔다. 아가의 알레고리적 해석을 비판하며 등장한 ‘문자적’ 해석은 “사랑시”라는 아가의 특성이 고려되면서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의 낭만적인 사랑이 주목되었으며, 과감하게 묘사된 여자의 성(sexuality)도 관심을 끌었다. 또한 여주인공의 목소리가 아가 전반에 걸쳐 지배적이기 때문에 여성에 의해 집필되었다는 연구도 등장하면서 아가는 여성 성서학자들의 활발한 관심을 받아왔다.<sup>16)</sup>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블랙은 동, 식물 혹은 건축물들의 이미지로 묘사된 아가의 여자의 몸을 기괴한 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아가에 묘사된 여자의 몸 이미지가 자부심과 강건함을 보여주며 당시 아름다움을 반영한다고 주장하면서 아가의 독특성이 주장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아가의 여자의 몸 이미지는 기괴한 모습인지, 아니면 아름다우며 자부심 넘치는 몸을 묘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가에서 여자와 남자의 몸은 네 부분에서 묘사되는데(4:1-7; 5:10-16; 6:4-10; 7:1-7), 이 중 한 곳이(5:10-16) 남자의 몸을 묘사하는 반면, 여자의 몸은 세 곳(4:1-7; 6:4-10; 7:1-7)에서 때로는 위로부터 아래로(4:1-7; 6:4-10) 혹은 아래로부터 위로(7:1-10) 여자의 연인에 의해 묘사된다. 그런데 여자의 몸에 사용된 이미지들은 현 사회에서 아름다운 몸을 묘사하는 이미지들, 예를 들어 작은 머리, 둥글고 큰 눈이나 두툽한 입술, 가늘고 긴 목선 등과는 사뭇 다르게 묘사되며 주로 동, 식물들, 건축물들이나 군사적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묘사된다. 예를 들어

---

16) 아가의 지배적인 여성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Athalya Brenner, "Women Poets and Authors," Athalya Brenner (ed.), *Feminist Companion to the Song of Songs* (ed. ; Sheffield: JSOT Press, 1993), 88-89.



여자의 눈은 “비둘기”와 같으며(4:1) “헤스본 문 곁의 연못”(7:4)과 같다. 머리칼은 “길르앗 기슭을 내려오는 염소떼”(4:1; 6:5)와 같으며 “자주빛”(7:5)이다. 여자의 이는 “쌍태를 낳고 털 깎을 준비를 하는 막 씻은 양떼”(4:2; 6:6)와 같으며 두 가슴은 “노루 쌍둥이, 두 새끼 사슴”(4:5)과 같다. 키는 “종려나무”와 같으며 여자의 가슴은 종려나무의 “열매 송이”(7:7)와 같다. 여자의 입술은 “진홍색 실”(4:3)과 같고 여자의 목은 “용사들의 방패 천 개를 둔 다윗의 탑”(4:4)과 “상아 탑”(7:4)에 비유된다. 코는 “다메섹을 굽어보는 레바논 탑”(7:4)과 여자의 머리는 “갈멜산”(7:5)과 같은 건축물로 묘사된다. 여자의 배꼽은 “둥근 술잔”과 허리는 “밀단”(7:2)으로 묘사된다.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들이 혼합되어 묘사된 여자의 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아름답기보다는 불균형과 기이한 모습의 한 여자가 나타난다고 블랙은 주장한다. 특히 산만큼 거대한 머리의 무게로 탑과 같은 목은 부러질지도 모르며, 어색하게 튀어나온 코도 조화롭지 못하다. 눈은 비둘기처럼 작고 실과 같이 얇은 입술은 작아서 거의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몸의 위 부분들이 비교적 잘 묘사된 것에 비해 가슴 아래 부분은 축소되어 묘사됨으로 몸을 지탱하기에는 비울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sup>17)</sup> 따라서 블랙은 아가의 여자의 몸은 비대칭적인 모습으로 설 수도 없을 것 만 같은 마치 “훨씬 덜 매력적인 성서의 바비인형”과 같다고 비유한다.<sup>18)</sup> 즉 아가의 여자의 몸은 아름다운 몸이 아니라 오히려 기괴한 몸이라는 것이 블랙의 주장이다. 이렇게 기괴한 여자의 몸을 독자들은 어떻게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까? 블랙은 전통적으로 아가를 사랑시로 이해해 왔고, 아가를 읽으며 독자들은 “아름답고 전원적인 사랑” 상상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이해가 우스꽝스러운 여자의 몸을 아름답게 보

17) Fiona C. Black, "Beauty or the Beast? The Grotesque Body in the Song of Songs," *BibInt* 8 (2000), 311-312.

18) 윗글.

도록 한다는 것이다.<sup>19)</sup>

더 나아가 건축물 이미지도 블랙은 기괴하다고 본다. 방패가 둘러진 목은 부상과 피가 낭자한 죽음을 상기시키는 전쟁에서의 승리와 관련되며 “디르사”나 “예루살렘”과 같이 혈투가 난무하는 전쟁의 도시로(6:4) 여자의 몸을 묘사하는 것도 기괴하다.<sup>20)</sup> 이와는 달리 남자의 몸(5:10-16)은 기괴하게 묘사되지 않는다. 물론 남자의 얼굴은 여자를 표현했던 이미지들을 상기시키는 비둘기나 몰약 즙이 떨어지는 백합(5:12-13) 등 다양한 요소들이 혼합되어 기괴한 면을 내포하기도 한다. 그러나 남자의 머리는 황금으로 설정되며(5:11), 그의 팔과 다리도 마찬가지로(5:14-15), 몸통도 보석들로 장식된다(5:14). 전체적으로 남자의 몸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아름다우며(5:15) 균형이 잡힌 조각과 같은 몸이다. 이렇게 조각과 같이 고전적인 몸으로 표현된 남자의 몸은 여자의 몸의 “혼종성과 기이한 특성들을” 강조한다. 그리고 조롱하는 듯 여자의 몸을 기괴하게 표현하는 것은 여자의 몸에 대한 남자의 불편함을 드러내는 듯 보인다고 블랙은 주장한다.<sup>21)</sup>

그러나 필자는 아가의 여자의 몸 이미지들이 기괴하다는 블랙의 주장이 현대 우리 시대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기준을 통해 여자의 몸을 응시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질문과 함께 블랙은 아가의 전체적인 맥락을 간과했다는 문제점을 제기해 본다. 즉 고대 중동의 삶의 상황에서 고대 독자들에게 동, 식물과 건축물 이미지들이 과연 기괴했을까 라는 것이 첫 번째 의문점이라면, 두 번째는 아가 전체의 맥락에서 아가의 몸 이미지를 이해할 때 여자의 몸은 기괴한 몸이 아닌 아름다운 몸이라는 것이다. 특히 아가에 묘사된 몸 이미지들을 “기하학적 형태”가 아니라 몸의 묘사 속에 들어있는 “역동적인” 의미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킬

---

19) 윗글, 305.

20) 윗글, 313.

21) 윗글, 315-318.

(Othmar Keel)의 주장은 아가의 몸 이해에 관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즉 눈이나 목, 코 혹은 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크거나 작은 지 뽀족한 지 등 여자의 몸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묘사하는 고대 중동의 관습들에 초점을 두고 아가의 몸 이미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대 세계에서 신이나 인간의 몸을 묘사할 때 그들을 둘러싼 장엄한 세계와 그들의 몸을 동일화시켜 신과 인간의 강인함과 중요성을 표현했다는 것은 아가의 여자의 몸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sup>22)</sup>

그렇다면 아가에서 사용된 동, 식물들이나 건축물들은 고대 세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졌으며 아가의 전체 맥락이나 여자의 몸이 묘사되는 부분들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먼저, 아가의 여자의 몸이 묘사되는 전, 후반부를 함께 읽을 때 몸을 묘사하는 여자의 연인의 시선과 목소리는 연인을 향한 사랑의 감정과 연인의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드러낸다. 예를 들어 4장에서 여자의 몸을 묘사하기에 앞서 연인은 감탄한다. “나의 사랑, 너는 참으로 아름답다”(4:1). 여자의 몸을 묘사한 후에도 연인은 외친다. “너는 모두 아름답다, 나의 사랑; 네게는 흠이 없구나”(4:7). 여자의 몸 “모두”가 연인의 눈에는 아름답다는 것이다.<sup>23)</sup> 예를 들어 “비둘기”는 연인을 칭하는 데도 사용되며(5:2) 눈을 통해 사랑을 전하는 상징으로 이해된다. “염소”가 “떼”를 지어 길르앗 기슭을 내려오는 비유를 여자의 머리칼에 사용함으로 검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진 젊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이것은 후에 왕도 매혹할 만큼 치령 치령하고 아름답다고 묘사된다(7:5). 검은 염소와 대조적으로, 씻은 후 털을 깎으러 나오는 “양떼”는 성서에서도 종종 묘사되는 “하얀 양털”(사 1:18; 시 147:16; 단 7:9)을 연상시키며 이것은 하얀 여자의 이를 묘사한다. 또한 “쌍태”로 가지런한 여자의 이를 표현한 것처럼, 여자의 가슴

22) Othmar Keel, *The Song of Songs: a Continental Commentary*, Frederick J. Gaiser(tra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139.

23) 윗글. 이하 여자의 몸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들은 길의 책을 참고함을 밝힌다.

또한 “노루 쌍둥이, 두 새끼 사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칭을 이루면 서도 두 마리를 생산하는 여자의 생산성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명을 주고 생명을 재생산하는 가슴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것은 구약성서의 다른 본문에서도 여자의 가슴이 형태와 관련되지 않고 축복(창 49:25)이나 신뢰(시 22:9)의 개념과 함께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sup>24)</sup> 이처럼 동물들로 묘사함으로 어색해 보일 수도 있는 여자의 몸은 기괴함보다는 오히려 현 시대에도 아름답다고 간주되는 요소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형태적인 측면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아름다움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물들의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식물이나 건축물 기타 여자의 몸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이미지들도 기괴함보다는 고대 세계에서 사랑을 불러일으키거나 여자의 강인함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진홍색 실” 같은 입술도 좁고 가느다란 형태를 묘사하거나 단순히 입술의 색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인의 사랑을 불러일으켜 매혹하는 입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종려나무” 같은 키와 그 “열매 송이”와도 같은 여자의 가슴은 현대 여성의 가느다랗고 큰 키의 몸 형태를 표현하기 보다는 즐거움을 통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자를 예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다에서 기원전 8세기에서 6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기둥 모양의 여신들(pillar goddesses)은 두터운 기둥 같은 몸에 풍성한 가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몸은 아직도 중동에서 여자의 아름다움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한다. 동시에 종려나무는 고대 중동에서 신성한 나무의 전형이었으며 당시 최고의 여성을 표현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sup>25)</sup> 즉 식물들의 이미지도 외형적인 형태로 이해되기 보다는 연인과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풍성한 생명력을 통해 열매를 맺는 여성의 특성을 드러

---

24) 윗글, 141-150.

25) 윗글, 242. 같은 책 240의 그림을 참고하라. 종려나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과 그림은 같은 책 242-245를 참고하라.

낸다고 볼 수 있다.

건축물 이미지도 마찬가지다. 특히 건축물 이미지들은 여자의 강인함과 자부심을 드러내는데, 예를 들어 여자의 탑과 같은 목도 탑과 같은 특정 형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자부심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즉 탑처럼 높이 들려진 목은 고대 중동에서 이상적인 여성의 아름다움의 일부인 자신감을 드러내는데 사용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다윗의 탑”은 옛 왕조에 대한 자부심과 침범할 수 없는 위엄을 보여주며, “용사들의 방패”도 탑을 방어하는 수비대의 철저한 준비를 상징하는 견고함을 보여준다.<sup>26)</sup> “상아”도 당시 왕실의 호화로움과 매력을 보여주는 건축 재료였으며, 도시가 여자로 비유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디르사(Tirzah)와 예루살렘과 같은 자랑스럽고 견고하며 아름답게 지어진 도시나(시 48) 요새로 비유됨으로 여자의 아름다움과 범접할 수 없는 자긍심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sup>27)</sup> “레바논 탑”이나 “갈멜산”과 같은 머리도 멀리 다마스쿠스까지 내려다보며 도시를 지키는 기능적인 측면의 표현이지 뾰족한 코나 거대한 머리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헤스본 문 곁의 연못”도 초원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목을 축이면서 재충전을 하는 것처럼, 여자의 연인 또한 여자의 눈을 통해 원기를 얻는 역할을 한다.<sup>28)</sup> 이렇게 동, 식물이나 건축물들은 고대 히브리 사고에서 그리고 고대 중동 세계에서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지만 아름다운 이미지에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몸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나타내기 때문

---

26) Keel, 윗글, 147. 또한 다음을 참고하라. Silvia Schroer and Thomas Staubli, *Body Symbolism in the Bible*, L. M. Maloney(trans.),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2001), 91, Carol Meyers, “Gender Imagery in the Song of Songs,” A. Brenner(ed.), *Feminist Companion to the Song of Songs* (Sheffield: Sheffield Academy Press, 1993), 197–212.

27) Keel, 윗글, 213. 또한 다음을 참고하라. Hayim Tawil, “Two Biblical Architectural Images in Light of Cuneiform Sources(Lexicographical Note X),” *BASOR* 341 (2006), 41, 47.

28) 윗글, 236. 그 밖에 “둥근 술잔”이나 “밀단”도 새로운 생명과 다산, 양육의 기능들과 연결되어 해석할 수 있다. 윗글, 234–235. “귀족의 딸”로(7:2) 불리는 그녀의 발은 아름답다라고 묘사되는데 이것은 귀족과 같이 당당한 걸음걸이와도 관련된다. Schroer and Staubli, 윗글, 184.

에 아름답고 동시에 자신감 있는 여자의 몸을 표현한 것이지 기괴한 몸을 드러내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여자의 몸을 묘사하는 여자의 연인 뿐 아니라 아가 곳곳에서 여자도 스스로 자신의 몸을 표현할 때 기괴하거나 수치심을 가지고 묘사하지 않으며 자신감과 강함을 드러낸다. “나는 성벽이며, 나의 가슴은 탑과 같다”(8:10)는 묘사는 성숙하고 가시적인 자신의 가슴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여기에서 “탑”은 8장 8절에서 10절의 전체적인 구도에서 볼 때 홍벽의 “돌출부”(merlons)로 보아야 한다고 타월(Hayim Tawil)은 주장한다.<sup>29)</sup> 타월은 아가 8장 8절부터 10절에 묘사된 건축 이미지를 고대 중동의 설형문자 자료들을 토대로, 히브리어에서 “돌출부”를 표현할만한 건축용어가 부족해서 여기에서 “탑”이라는 용어로 사용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8절은 여주인공이 자신의 가슴에 대한 그녀 오빠들의 묘사에 대한 답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오빠들이 사용한 용어들이다. “우리는 아직 가슴이 없는 작은 누이동생이 있다. . . 만약 그녀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 홍벽(battlement)을 그 위에 세울 것이며; 만약 그녀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으로 두를 것이다(8:8-9).” 타월에 의하면, 고대 중동에서 “홍벽”은 주로 방어를 위한 군사적 용도로 건축되었으나, 또한 도시성벽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장식용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아가의 “은 홍벽”과 평행하는 고귀한 재료들로 장식된 “홍벽들”이 설형문자 문학에도 등장하는데, 그 중 건축물 완성을 이야기하는 산헤립(Sennacherib)은 건물의 받침대, 소벽들과 홍벽 돌출부들을 흑요석(obsidian)과 청금석 색으로 윤택한 벽돌들로 장식했다고 자랑한다. 도해 증거(iconographical evidence)에서도 여신들과 여왕들이 “장엄한 도시의 상징인 홍벽 모양의 왕관들을” 쓰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가에 등장하는 “은 홍벽”도 여주인공이 성숙할 때쯤

---

29) Tawil, 윗글, 46.

쓰게 해주겠다는 약속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타일은 주장한다.<sup>30)</sup>

즉 전체적으로 아가 8장 8절에서 10에 사용된 “도시 건축물 요소는 어의론적(semantic)으로나 기능적으로 메소포타미아 건축 비문(inscriptions)들과 평행을 이룬다고 본다.” 예를 들어, 앞서 보았던 흉벽의 “돌출부”로 볼 수 있는 “탑”은 아카드어 파샤쿠(pasqu)와 “기능적으로 동의어로” 두 개의 흉벽 사이 난간의 견고한 부분을 가리킨다. 이집트 예술에서는 둥근 형태로 신아시리아 구조물에서는 총안무늬(crenels)와 삼각형의 “돌출부”로 나타나는데, 이집트 형과 메소포타미아의 계단형(steped)이 여자의 가슴과 닮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sup>31)</sup>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수용한다면, 고대 중동의 군사적 이미지나 건축물과의 비교적 측면에서도 앞서 살펴보았던 여자의 몸 이미지들은 주인공의 아름다움과 강함을 보여주고 있음을 재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아가의 여자의 몸 이미지들은 기괴하기 보다는 자신감 넘치는 아름다움으로 읽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려 본다. 물론 아가의 여자의 몸 이미지들은 블랙이 주장하는 것처럼 독자의 시선에 따라 이상하고 기괴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자의 몸을 기괴하게 보는 블랙의 시선은 사회에서 정한 아름다움과 기괴함의 기준을 반영하는 시선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져 본다. 우리 시대에 만들어진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그 시선으로 아가의 여자의 몸을 봄으로 기괴하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대 세계에서 아가의 여자의 몸은 기괴한 몸이 아니라 오히려 강인함과 자부심을 반영하며 몸의 형태가 아닌 그 기능적인 측면들도 함께 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몸의 형태만 중시하는 현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기괴함과 아름다움의 기준을 정할까?

---

30) 윗글, 42-43.

31) 윗글, 45-46.



이것은 우리와 타인의 몸을 보고 평가하는 우리의 '시선'에 대한 질문들로 아가에 나타난 여자의 몸을 보는 '시선'을 통해 성찰해 보기로 한다.

#### 4. 봄과 보여짐: 편견의 시선, 누구의 시선인가?

우리가 자신과 타인의 몸을 보고 또한 타인이 우리의 몸을 보듯이, 아가에서도 끊임없이 보고, 보여지는 시선들이 등장한다.<sup>32)</sup> 남자의 몸도 여자에 의해,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보여지고 있으나(5:10-16), 남자의 몸은 여자의 시선을 통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위로부터 아래로 간접적으로 보여진다. 또한 남자의 몸을 향한 간접적 시선과 함께 남자는 여주인공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사라짐으로 “보여짐을 피하며, 보여짐에 대해 저항하는” 것처럼 보인다.<sup>33)</sup> 그러나 여자의 몸은 모호한 화자를 통해 아래로부터 위로 직접적으로(7:1-7) 보여지며, 몸이 보여지기 이전에 여자에게 이야기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6:13). 따라서 남자에 비해 여자의 몸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여자의 몸은 남자에 의해 보여지는(gaze) 혹은 관음증(voyeurism)의 대상처럼 등장한다.<sup>34)</sup>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남자(들)의 시선에 노출되는 여자의 몸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자를 대상화하는 시선인가? 독자들은 아가의 여자의 몸을 어떠한 시선으로 보고 있을까? 아름다운 몸임에도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우리의 시선은 누구의 시선을 반영한 것일

---

32) 이 단락은 새로운 내용의 첨가와 재구성성이 있으나, 필자의 논문 중 일부의 발췌도 있음을 밝힌다. Ji-Eun Park, “Quills of the Strange Woman: A Postcolonial Feminist Reading of Women in Proverbs and the Song of Songs” (Ph.D. diss., Nashville: Vanderbilt University, 2009), 123-129.

33) Donald C. Polaski, “What Will Ye See in the Shulammitte? Women, Power and Panopticism in the Song of Songs,” *Biblical Interpretation* 5 (1997), 75-76.

34) 아가를 포르노그래피와 관련해서 보는 글들은 다음과 같다. 유연희, 윌글, Roland Boer, “Night Sprinkle(s): Pornography and the Song of Songs,” *Knockin' on Heaven's Door: The Bible and Popular Culture* (New York: Routledge, 1999), 53-70.

까? 만약 돌아선 여자의 몸이 블랙의 주장처럼 기괴한 몸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설령 기괴한 몸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아달랴 브레너(Athalya Brenner)는 여자의 몸을 사회가 규정한 아름다운 이미지나 시선에 대항하는 몸으로 해석한다. 자신의 몸을 기괴하게 혹은 관음적으로 보는 시선에 대해 아가 7장에서 여자는 익살스럽게 사회의 “인습적이고, 이상화되고, 이상화된 사랑과 사랑의 대상인 여자의 이미지들에 저항한다.”<sup>35)</sup> 즉 균형이 잡히지 않고 우스꽝스럽게, 기괴하게 혹은 대상화하여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여자는 자신의 몸을 사랑스럽게 보고 있는 시선이 있음을 드러낸다. 즉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여자의 몸에만 사랑스러운 시선을 받을 수 있으며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념에 도전한다. 동시에 고대 세계에서 아름다운 시선으로 보여졌던 여자의 몸이 특정한 사회에서 만들어진 아름다움의 기준을 통해 기괴한 시선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시선은 시대나 문화에 따라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자는 여자의 몸에 대한 이상화를 거부한다고 브레너는 주장한다. 만약 여자의 몸을 기괴하게 본다면, 여자의 몸은 비록 전통적으로 아름답다고 간주되는 몸이 아님에도 여전히 그녀의 연인인 남자의 갈망을 불러일으킨다(7:8-10). 또한 남자의 시선이 여자를 계속 보고 있으며 여자는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시선은 그녀의 몸을 상품화하는 시선이 아니라 그의 갈망을 담은 시선, 즉 사랑의 시선이다. 그리고 마치 그녀의 연인인 그가 그녀를 보고 있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듯이 여자는 아마도 그가 보고 있음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다. 셰릴 엑섬(Cheryl, J. Exum)도 8절에서 은유적으로 남자가 “종려나무에 올라간다는” 묘사는 관음적이라기 보다는 에로틱한

---

35) Athalya Brenner, "Come Back, Come Back, the Shulammitte (Song of Songs 7:1-10): A Parody of the Wasf Genre," Athalya Brenner(ed.), *Feminist Companion to the Song of Songs* (Sheffield: Sheffield Academy Press, 1993), 255.

측면이 이곳에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항상 대상화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아가에서 보고 보여지는 것은 상호적임을 강조한다.<sup>36)</sup> 아가에서의 바라봄은 결널질하거나 관음적인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응시, 똑바로 봄”이며, 따라서 바라봄의 대상이 되는 몸도 그 시선이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평가가 아닌 사랑의 시선이기 때문이다.<sup>37)</sup> 기괴함을 느끼지 못하는 시선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가의 여자의 몸이 기괴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자의 몸을 보는 여주인공 자신의 시선도 오히려 여자의 몸을 기괴하게 바라보는 시선에 도전한다. 여주인공은 아가 서두에서 자신의 “검은” 얼굴을 “아름답게” (1:5) 바라보며 자신의 모습에 자부심을 드러낸다. 여기에서 검은 피부는 인종(race)보다는 피부색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태양빛 아래에서 일했기 때문에 검어졌다는 설명 때문이다.<sup>38)</sup> 검은 피부가 아름다움의 기준이었다면 굳이 검다는 것을 이야기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면서 액션은 태양빛 아래서 일했기 때문에 검다는 여주인공의 설명을 통해 여자가 하층민 여성이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그리고 “검고 아름답다”는 여자의 시선은 일과는 무관한 삶을 즐기는 “상류층 여성 혹은 도시 여성”들의 일로 인해 검어진 얼굴과 아름다움은 양립할 수 없다는 관

---

36) Cheryl, J. Exum, Song of Songs: A Commentary(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231, 22.

37) 이종록, 윗글, 41.

38) Exum, 윗글, 104. 그러나 레니타 웨임스(Renita Weems)는 마이클 굴더(Michael Goulder)의 주장을 수용하여 7:1절의 “귀족의 딸”을 여주인공의 고향인 아라비아의 나디브(Nadiv)를 언급한 것으로 “검은”을 여주인공의 인종(ethnicity)과 관련하여 해석한다. 동시에 웨임스의 주장처럼, 계급적인 해석이 인종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지적이다. 웨임스의 주장처럼 만약 “검다”는 것을 여주인공의 인종적 측면과 관련하여 해석한다면, 이것은 현 시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백인여성의 외모와 피부색을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대부분 생각하고 있으며, 검은 것은 불길하거나 추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Renita J. weems, “Song of Songs,” Carol A. Newsom and Sharon H. Ringel(ed.), Women’s Bible Commentary (Expanded Editi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167.

점에 도전하는 것으로 본다.<sup>39)</sup> 또한 검은 피부색이 종종 “병이나 죽음의 증상”(애 4:7)과 연결되었음을 볼 때,<sup>40)</sup> 검은나 아름답게 보는 여주인공의 시선은 자신의 몸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아름다움을 보는 사회의 기준과 시선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기괴함과 아름다움 혹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는 우리의 시선은 “선협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허구”임을 알 수 있다.<sup>41)</sup>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19세기에 기괴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전시하였고, 20세기 중반까지도 동물이나 기형인 사람들을 괴물 쇼에 출현시켰다고 한다. 흑인들을 사고파는 시기에 사라 바트만이라는 흑인 여성은 그녀의 거대한 가슴과 엉덩이로 인해 구경거리로 영국에 데려와 졌다고 한다. 청교도적인 금욕이 강조되던 시기에 성(sexuality)적인 것이 “경이 자체였던” 바트만은 인간이 아닌 “암컷의 전형”으로 많은 영국인들에게 신비한 대상이자 두려움을 주는 괴물이 된 것이다. 즉 바트만은 “아프리카에서 괴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유럽인들의 괴물 만들기의 결과로 괴물이 된 것이다.”<sup>42)</sup> 그러나 오늘날 풍만한 가슴과 엉덩이는 괴물이 아니라 아름다운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기괴함과 아름다움을 보는 우리의 시선은 가변적이다. 그리고 바트만 이야기는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사회적 시선에 의해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 시선으로 어떻게 타인을 보며, 대상화된 타인의 몸은 어떻게 왜곡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그러나 슬픈 예이기도 하다. 아가의 여자의 몸도 성서를 통해 시, 공을 초월하여 다양한 사회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몸의 형태로 오랫동안 노출되어 왔다. 한 때는 성벽을 두르는 강건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한 때는 영혼의 그늘에 가려 존재감 없는 몸으로.

---

39) 윗글.

40) Schroer and Staubli, 윗글, 208.

41) 김종갑, “철학적 스캔들로서의 괴물,” 몸문화연구소 편, 「그로테스크의 몸」(서울: 쿠북, 2010), 42.

42) 윗글, 24-28.

한 때는 진솔한 몸과 성에 자부심을 느끼는 건강한 몸으로, 한 때는 형체를 알아보기에는 너무도 많은 것이 섞여 있는 기괴한 몸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여자의 몸은 독자들의 다양한 시선에 의해 다양한 몸의 형태로 보여질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가의 여자의 몸을 통해 나의 몸과 타인의 몸이 살아나는 긍정의 시선이 아닐까 한다.

## 5. 나가는 말

아가에 묘사된 여자의 몸 이미지들을 고찰함으로써 이 글은 몸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으며, 사회에서 규정한 아름다움의 기준을 통해 우리의 몸과 타인의 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재성찰하였다. 글을 시작하며 언급했던 다큐를 보며 놀라웠던 것은 거기에 등장했던 영국의 비키 라이트라는 여성이었다. ‘가족섬유형성 이상증’이라는 유전성 질병을 앓고 있는 라이트는 얼굴 하부, 즉 턱이 보기에 도 무거울 정도로 크고 튀어나와 있었다. 그러나 라이트는 수술하지 않는다. 타인의 시선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감내하며 수술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다큐에 비친 라이트의 얼굴은 우리 사회의 아름다움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아니 오히려 기괴함을 넘어선 모습이었다. 그러나 당당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그녀의 남편과 자녀와 행복한 삶을 즐기는 라이트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뭔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은 왜일까? 깎아내린 가름한 턱이 아닌 네모난 턱이지만 그 속에서 천편일률적이지 않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왜일까? 많은 편견과 때로는 혐오의 시선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라이트의 또 다른 아름다움이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창조자가 준 모습 그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적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가에서 남자의 시선으로 묘사된 여자의 몸은 분명 고대 세계에서는 아름다운 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은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제한되지 않고 삶의 즐거움과 생명과 관련된 몸의 기능들이 동시에 수반된 아름다움인 것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가의 여자의 몸은 독자들에게 따라 기괴한 모습일 수도 있음을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현 우리 사회에서 규정한 아름다움의 기준에는 못 미치기 때문이다. 바트만처럼 구경거리의 대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검은 피부, 거대한 머리, 동물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이목구비, 부실해 보일 수도 있는 하체, 탐과 같은 굵은 목, 성 정체성도 모호해 보이는 전체적인 모습. 그러나 여전히 아가의 여자의 몸은 아름답다. 타인이 보는 기괴함을 사랑으로 보고 있는 남자의 시선이 있기 때문이다. 타인이 보는 기괴함을 부끄럽지 않게 보는 여자의 시선이 있기 때문이다. 타인이 보는 기괴함을 아름다움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있기 때문이다.

## 6. 참고문헌

- 김종갑, “일상으로서 그로테스크,” 몸문화연구소 편, 「그로테스크의 몸」 (서울: 쿠북, 2010), 3-13.
- \_\_\_\_\_, “철학적 스캔들로서의 괴물,” 몸문화연구소 편, 「그로테스크의 몸」 (서울: 쿠북, 2010), 19-44.
- 김지찬, “아가서의 문예적 독특성과 신학적 메시지,” 「신학지남」 74(3), (2007년 9월), 121-162.
- 로지 브레이도티, “어머니, 괴물, 기계” (손영희 옮김), 케티 콘보이/ 나디아 메디나/사라 스텐베리 엮음,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의 상품화 그리고 저항의 가능성」 (고경하 외 편역), (서울: 한울, 2001).
- 유연희, “성서의 성(性과): 에스겔과 아가의 포르노그래피,”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67집, 53-74.
- 이경숙, “서론: 여성이 읽는 구약성서,” 이경숙 외, 「여성이 읽는 성서: 구

- 약성서개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13-41.
- 이경숙, “생태학적 여성신학의 관점에서 본 구약성서의 자연과 여성,” 「구약성서의 하나님 · 역사 · 여성」(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이은애, “구약성서에 나타난 인간의 아름다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4집 (2011), 17-20,
- 이종록, “관음을 넘어서 응시로: 아가서 4장 1-5절을 중심으로 살펴본 몸 이야기,” 「성경연구(설교자를 위한)」 69호 (2000년 8월), 36-71.
- SBS 스페셜, “그녀, 뼈를 깎다, 내 딸의 양악수술,” (2013년 5월 26일).
- Black, Fiona C., “Beauty or the Beast? The Grotesque Body in the Song of Songs,” *BibInt* 8 (2000), 302-323.
- Boer, Roland, “Night Sprinkle(s): Pornography and the Song of Songs,” *Knockin’ on Heaven’s Door: The Bible and Popular Culture* (New York: Routledge, 1999), 53-70.
- Brenner, Athalya, “Come Back, Come Back, the Shulammite (Song of Songs 7:1-10): A Parody of the Wasf Genre,” A. Brenner(ed.), *Feminist Companion to the Song of Songs* (Sheffield: Sheffield Academy Press, 1993), 234-257.
- \_\_\_\_\_, “Women Poets and Authors,” A. Brenner(ed.), *Feminist Companion to the Song of Songs* (Sheffield: JSOT Press, 1993), 86-97.
- Eilberg-Schwartz, Howard, “The Problem of the Body for the People of the Book,” Alice Bach(ed.), *Women in the Hebrew Bible* (New York: Routledge, 1999), 53-73.
- Exum, Cheryl, J., *Song of Songs: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 Keel, Othmar, *The Song of Songs: a Continental Commentary*, Frederick J. Gaiser(tra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 Meyers, Carol, "Gender Imagery in the Song of Songs," A. Brenner(ed.), *Feminist Companion to the Song of Songs* (Sheffield: Sheffield Academy Press, 1993), 197-212.
- Polaski, Donald C., "What Will Ye See in the Shulammitte? Women, Power and Panopticism in the Song of Songs," *Biblical Interpretation* 5 (1997), 64-81.
- Schroer, Silvia and Thomas Staubli, *Body Symbolism in the Bib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2001).
- Tawil, Hayim, "Two Biblical Architectural Images in Light of Cuneiform Sources(Lexicographical Note X)," *BASOR* 341 (2006).
- Weems, Renita J., "Song of Songs," Carol A. Newsom and Sharon H. Ringe(ed.), *Women's Bible Commentary* (Expanded Editi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164-168.
- Wegner, Judith Romney, "Leviticus," Carol A. Newsom and Sharon H. Ringe(ed.), *Women's Bible Commentary* (Expanded Editi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40-48.

검색어

아가

몸

기괴함

외모

시선

## From the Othered Body to the Living Body: Centering the Body Images in the Song of Songs

Ji-Eun Park

Lecturer at Ewha Woman's University

Vanderbilt University Ph. D.

This article re-examines our perception of body images of ourselves and others in current society where physical appearance is capitalized and commercialized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body images in the Song of Songs. The human body, which was inferior to the human mind under the Greek dichotomous mind/body scheme, has been revalued and harmonized with the mind by modern Western discourse. However, particular human bodies, along with an over-emphasis on the human body in general, have been considered superior and more beautiful according to a standard set by a certain group of people in our society. As a result, some, particularly those who have bodies that do not fit this standard, are alienated and risk their lives to reshape their bodies through plastic

www.kci.go.kr

surgery. Women's bodies, rather than men's, are more exposed to suffering from these social expectations and standards. Women's bodies are usually described negatively in the Hebrew Bible as well. However, women's body images in the Song of Songs represent the natural female body rather than embodying social prejudice. Even though women's body images in the Song of Songs may be viewed as grotesque, as Fiona Black suggests, this argument overlooks the question of whose perspective is being reflected. In other words, the distinction between ugly/grotesque and beautiful or between normal and abnormal reflects a social perspective that has been naturalized by a particular discourse. Accordingly, the article tries to generate an unbiased perspective, perceiving the bodies of ourselves and others as they are, without evaluating and judging them through social/othering eyes or distorted eyes.

## Key words

Song of Songs

Body

Grotesque

Appearance

Perspective

- 투고일: 2013년 7월 01일
- 심사일: 2013년 7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8월 05일

[www.kci.go.kr](http://www.kci.go.kr)